

# 국토부, 손병석 차관 등 한파 대비 도로·공항 등 안전 점검 총력

8일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, 전국 공항 찾아 비상대응체계 점검

- 국토교통부는 올 겨울들어 첫 한파 경보가 발령된 가운데 도로·공항 등 주요 교통시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손병석 국토교통부 제1차관을 비롯한 산하기관장, 소속기관장 등이 현장을 찾아 한파·대설 대응 태세를 집중 점검하고 피해 우려시설 등에 대한 예방 조치 등을 실시했다.
  
- 손병석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2월 8일(토)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를 찾아 한파·대설 대비 사전준비 현황과 주요 대책 등을 보고받고 비상 대응체계를 점검했다.
  - 이 자리에서 손병석 차관은 “한파·대설 등 자연재난의 사전 점검·대비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”라고 말했다.
  
  - 특히 “고속도로 이용객 안전 확보와 불편 최소화를 위해 엄중한 경각심을 갖고 만전을 다 해달라.”면서 국무총리 긴급 지시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거듭 당부했다.
  
- 한편, 백승근 도로국장을 포함한 국토교통부 소속 각 지방청장 등도 도로 제설현황 및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.
  - 추운 날씨와 어려운 근무여건 속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선 현장에서 일하는 관계자들을 격려하면서, 주말동안 서해안 지역 폭설로 인한 도로 결빙 등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한

사전준비를 당부했다.

- 손명수 항공정책실장을 비롯한 인천공항공사 사장, 한국공항공사 사장권한대행 및 지방항공청장 등도 ‘하늘길’ 안전 확보에 나섰다.
- 김포·제주 등 전국 공항을 방문하여 강설 대비 주요 시설 및 운항 현황 등을 점검하고, 서해안·제주 지역 기상 악화에 대비하여 “공항 운영과 이용객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대응태세에 만전을 기할 것”을 당부했다.

2018. 12. 8.

국토교통부 대변인